KTV 국민방송

제 12 호

2014년 4월 7일

방송심의

기획편성부

프로그램		파워특강	
방송일자	2014. 3. 31. 16:05	시청률	0.004

【총 평】

최근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신화'를 주제로 김융희 전 서울예대 교수가 <삶이 축제가 되려면 - 삶의 길목에서 만난 신들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진행했음.

【구성 및 내용】

김융희 전 서울예대 교수가 신화 속에서 삶을 축제로 만드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음. '신화'의 개념정리를 시작으로 신화가 갖고 있는 상징성에 대한 설명들을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풀어냈음.

디오시노스 신과 아폴론 신을 중심으로 한 '신들의 이야기'가 '삶이 축제가 되려면'이라는 주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주제의식이 도출되는 과정이 길게 전개되어 지루하게 여겨졌음.

철학과 미학을 바탕으로 한 강의 내용이 다소 원론적인 설명으로 흐를 수도 있었는데 디오니소스를 중심으로 그리스 신화 이야기를 풀어내 주며 시선을 집중시켰고, 이후 삶에 대한 진정성 있는 접근이 흡인력 있었음.

【참고사항】

프로그램을 위해 사전 준비된 강의가 아닌 현장 강의를 녹화해 방송한다는 점에서 오프닝과 클로징을 짜임새 있게 만들기 위해 강사의 인터뷰나 강의를 듣고 난 후의 느낌 등을 구성하면 좋을 듯함.

프로그램		국민행복시대	
방송일자	2014. 4. 1. 17:00	시청률	0.015

【총 평】

진행자들이 전체적으로 순발력 있게 대담을 잘 이끌어나갔고, 대담자들을 배려하며 진행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지만, 진행자간 사인이 일부 맞지 않아 어색하게 튀는 부분이 있어 아쉬움이 있었음.

<창의교육, 대학의 길>은 20여분에 걸쳐 충분한 통역없이 외국어로 대담을 진행했는데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됨. 특히, 초반 약 1분 동안은 자막과 설명도 없이 영어 답변이 이어져 답답함이 있었고, 자막 형태도 일관성 없이 계속해서 변화하는 등 시청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진행되었음.

【구성 및 내용】

<정책점검, 정책제안>은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이 발의한 '출산 장려 기금 법안'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국회법 한글화 개정 작업'에 대해 구체적이면서도 재미있게 진행한 점이 돋보였음. 특히, 일반 시민들은 본인들의 역할은 제대로 하지 않고, 의무와 기득권만 챙기려는 국회의원들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는데, 법을 만드는 기관에서 법을 엄정하게 지키려는 문화, 준법 의식이 약하고 이것을 바꿔나가고 싶다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기 반성적인 답변을 하였음.

<창의교육, 대학의 길>은 우송대학교 존 엔디콧 총장이 출연해 우송대학교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대학들이 세계로 뻗어 나가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잘 보여주었음.

프로그램	패러디팟! 라디오정책쇼		
방송일자	2014. 4. 1. 18:15	시청률	0.000

【총 평】

시청자 사연인 아내 생일선물 위한 근로장려금 신청문의를 소재로 주제를 풀어나감으로써, 시청자들에게 근로장려금에 대한 보다 쉬우면서도 체감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해주었음. 특히, "행정개그를 아시나요?"에서 국세청 직원 3명의 '그린 라이트를 켜줘!의 경우, 구체적 사례소개가 흥미는 물론 이해를 돕기에도 부족함이 없었음. 단, 근로장려금과 근로장려세제라는 용어를 중복 사용해 자칫 시청자들에게 혼동을 줄 소지가 있었음.

【구성 및 내용】

도입부에서 '오늘의 테마'인 근로장려금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내기 위해 시청자 사연소개라는 형식을 따온 점이 매우 좋았다고 생각됨. <미녀와 야수의 맞짱 대결>의 경우 '맞짱대결'이라는 타이틀이 가지는 '긴박감'이나 '관심도'가 다소 부족한 느낌을 주는 것 같음.

도입부에서 임평순 진행자가 김윤주 진행자의 진분홍 의상을 보고 봄노래를 부르는 등, 봄이라는 시의성을 잘 살린 진행이 눈에 띄었음. 단, 김윤주 진행자가 화사한 진홍색 의상을 입은 만큼, "내 사랑 목련화" 보다는, " ~ 봄이 오면 산에 들에 진달래 피네"를 불렀더라면 더 어울렸을 것 같았음.
또한, 근로장려금 지급현황, 신청기간과 방법 및 신청방법 등, 근로장려금에 대한 디테일한 정보제공이 돋보였음. 특히, ARS 신청, 휴대전화, 모바일 웹, 인터넷 신청 및 세무서 방문 등 신청방법의 도표활용이 근로장려금에 대한 보다 쉬우면서도 편리한 접근을 가능하게 해주었음.
<행정개그를 아시나요?>의 경우, 그린 라이트 사례뿐만 아니라 해당사항이 안 되는 레드 라이트 사례도 다루었더라면 더 이해도를 높였을 것임.

프로그램	희망로드 세계로		
방송일자	2014. 4. 1. 20:00	시청률	0.043

【총 평】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우리 젊은이들이 해외문화재 복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라오스 현장에 찾아가 그들의 활동과 일상을 담아냈음. 대한민국 최초로 세계문화유산 복원활동에 참여했다는 점과 열악한 현지상황에서도 자긍심과 열정으로 복원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이 의미 있는 아이템이었음.
특히, 무더위 속에서도 이국의 문화재 양식을 배워가면서 발굴해내는 모습이 자국의 문화 이기주의를 넘어 세계의 문화와 문화재를 수호하는 모습이어서, 시청자로 하여금 해외의 문화재를 바라보도록 식견을 넓혀주었음.

【구성 및 내용】
화자(話者)를 현지에서 활동하는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박순영씨로 설정했는데, 시작부분 이외에는 주인공이 話者라는 것을 거의 인식할 수 없었음. 주인공이 이야기하는 구성이므로 주인공만의 이야기를 좀 더 실감나게 들려주었다면 더 재미있었을 것임.
라오스 홍난시다 사원 복원사업이 언제까지 이뤄지는지, 현장에 파견된 우리 발굴단원들이 언제까지 활동하는지 등 현장 및 현장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거의 제공되지 않아 이해도를 떨어뜨리는 점이 아쉬웠음.
'문화재 복원'이라는 독특한 소재가 눈길을 끌었는데, 저개발국 세계문화유산 복원이 갖고 있는 의미와 우리나라의 복원 기술이 어느 정도인지 언급해 주었으면 더욱 더 좋았을 것임. 특히, 문화외교에 대한 흥미와 내용을 충족시킨 의미 있는 시간이었음.

프로그램	희망의 새시대		
방송일자	2014. 4. 2. 11:00	시청률	0.053

【총 평】

오프닝을 시작으로 이시각 주요뉴스 8개, 단신과 정책소식 3개, 이 시각 국제뉴스 4개, 국민리포트 4개, 응답하라 통일 초대박!, 여기는 세종, 맛있는 날씨의 순서로 이어졌음.

【구성 및 내용】

'추락 무인항공기, 북한 소행에 무게'는 주요뉴스를 비롯해 국제뉴스에서도 보도되었는데,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이지만 전달했던 내용들을 중복되고 있어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느낌이었음.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조정 검토' 소식은 새로운 세금이 생기는 문제이므로 민생과 직결되는데도 불구하고 단신으로 처리한 반면 '법무관 출신 신임검사 34명 임관식 열려'는 상대적으로 비중 있게 다뤄져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더 시청자의 눈높이에 맞춰지면 바람직하겠음.** '가계 기업 정부 빚 3천783조원' 단신도 그 내용이 궁금했으나 스쳐지나가 아쉬웠음.

<국민리포트>에서는 남산 한옥마을의 삼짇날 봄놀이, 전국 취업의 거리, 진해 군항제, 소셜 다이닝에 대한 아이템들이 소개되었음. 특히,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소식들이 눈길을 끌었고 틀이 정해지지 않아 다양한 아이템을 소개할 수 있어 흥미로웠음. <응답하라 통일 초대박!>의 경우 <동북아 협력 방안은?>이란 제목이었으나 동북아 협력방안을 제시한 것도 아니고 한반도를 둘러싼 일본과 중국의 태도를 짚어보는 수준이었음. <여기는 세종>의 경우 <공교육의 새바람 자유학기제>는 세종시 현장에서 진행되는데도 불구하고 세종시라는 현장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 진행방식이나 구성 등에 차별점을 두어 전개하면 바람직하겠음.

프로그램	신문화별곡, 어울림		
방송일자	2014. 4. 2. 20:00	시청률	0.026

【총 평】

'나도 썸~타고 싶다 청춘남녀의 두근두근 데이팅'은 제목부터 신세대다웠고 호기심과 궁금증을 불러일으켰으나 중장년층에게는 생소할 수도 있었음.
불특정다수의 시청자와 다양한 세대들이 함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접근방식을 고려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음.

또한 **최근 유행이라고는 하지만 1회에 큰 비용을 지출해야하는 이벤트성 데이트 코스들을 소개하여 젊은 연인들의 소비를 조장할 수도 있겠다는 우려도 일부 있었음.**

【구성 및 내용】

이번 회의 주제를 '두근두근 데이트'로 잡고 SNS를 매개로 한 미팅 풍경, 직접 커플링을 만들거나 커플 마사지를 받는 등의 데이트 프로그램을 소개해 최근의 데이트 풍속도와 젊은 세대들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
'블링블링', '썸 타다' 등 10대~20대에 유행하는 언어들을 사용하였는데, 해당 세대들에게는 유행에 뒤떨어지지 않는 프로그램으로 받아들여졌겠지만, 중장년층에게는 세대차이를 느끼고, 이해가 잘 안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음. '신문화별곡, 어울림'이라는 제목처럼 새로운 문화 풍속도를 소개하더라도 다른 세대들도 어우러져 공감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접근법에 대해 좀 더 고려해 주었으면 함.
최근 사회 흐름에 맞춰 미팅과 데이트 문화도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흥미롭고 새로웠음. 예전 세대의 미팅과 데이트 문화와의 비교를 해주었다면 더욱 흥미롭고 세대간의 이해를 도울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음.

【참고사항】

최근 88만원 세대라는 말처럼, 평범한 연인들은 데이트 비용에 금전적인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저렴한 금액으로 누릴 수 있는 여러 데이트 아이디어 등을 소개해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음.

프로그램	한류! 세상과 통하다		
방송일자	2014. 4. 3. 14:05	시청률	0.035

【총 평】

라우라, 샤흘로, 가브리엘 세명의 외국인이 한국 문화를 체험하게 하는 밋밋한 형식이 아니라 한류 관련 미션을 주어 각자가 다양한 체험 도전을 해보고, 그들 나름의 해결책을 찾아 경쟁한다는 형식과 구성이 매우 흥미롭고 신선함. 그러나, **여러 회차에 걸쳐 미션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처음 보는 시청자들을 위해 지난 이야기와 현재 이야기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혼란을 막을 수 있을 것임.** 이번 회차에는 도입부에서 미션도 명확하게 제시되지 못하였고, 지난 이야기와 현재 이야기가 명확한 구분없이 흘러가서 뒤늦게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음.

【구성 및 내용】

경복궁에서 여러 외국인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복에 대한 칭찬 일색의 이야기가 아니라, 외국인의 솔직한 생각을 들어볼 수 있어서 의미 있었음. **현대 사회에서 옛 전통 그대로의 한복은 특별한 날의 의상 이상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일반 외국인들의 인식을 파악할 수 있었고, 한류의 세계화를 위해 이러한 외국인들의 인식은 꼭 유념해야한다는 생각이 들었음.** 한국인 리포터가 아니라 한복을 입고 있는 외국인 리포터가 다른 외국인을 인터뷰하며 의견을 들어보는 형식도 새롭고 흥미로웠음. 국립민속박물관, 전통천연염색공방, 한복공방, 경복궁 등 한국인도 모두 체험하기 어려운 전통 관련 공간 곳곳을 돌아보고 알려주어 정보면에서도 유익하였고, 볼거리도 풍성하였음. 한국인이지만 잘 몰랐던 한국의 전통문화에 대해 깨닫고 자극을 받는 시간이었음.

프로그램		인문학 열전	
방송일자	2014. 4. 3. 16:05	시청률	0.041

【총 평】

정부의 주요정책 중의 하나인 문화융성을 철학적 시각에서 바라본 <우리시대 인문학>의 테마 설정이, 한류확산과 창조경제라는 시대적 소명과 잘 연계되었음. 특히, 중간 중간에 배치된 흑백사진이 주제를 상징적으로 나타내주기에 부족함이 없었음. 단, <길 위의 인문학>은 <우리시대 인문학>과 서로 연계나 조화되지 못하고 따로 노는 인상을 주었던 것 같음.

【구성 및 내용】

홍사종 교수가 <우리시대 인문학>의 메인진행을 맡고 있는데 반해, <길 위의 인문학>은 박지윤 리포터가, 그리고 <인문학 에세이>의 경우는 별도의 연결 진행이 없는 등 3개의 코너가 따로 따로 연계나 조화없이 배치되고 있음.

<우리시대 인문학>의 경우, '추격경제' 및 '압축성장' 과정에서 드러난 우리 사회의 불안감을 '인문학에 대한 성찰'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김기현 서울대 교수의 이야기가 공감을 주기에 모자람이 없었다고 봄. 특히, 한류확산과 창조경제라는 정부의 주요정책과의 연계가 시의성과도 잘 매치가 되었다고 여겨짐.

<길 위의 인문학>은 [국립세종 도서관]을 다루었는데, "국내 최대 인공호수 옆에 위치", "세계적 디자인 상 수상" 및 "체험형 동화구연" 등 건물 내외관 및 행사프로그램 소개 등 희망의 새 시대의 <여기는 세종>에서 다뤄도 될 '문화탐방' 같은 수준의 내용이었던 것 같음.

프로그램	이상벽의 TV 시간여행		
방송일자	2014. 4. 4. 14:05	시청률	0.004

【총 평】

본격적인 야구시즌을 맞아, 1982년 프로야구 원년의 추억을 새삼 일깨워준 신선한 테마 설정이 눈에 띄었음. 특히, 이상벽 MC가 직접 인천 문학구장을 찾아 관람객들과 하나가 되어 33년 프로야구의 과거와 현재를 다룬 현장성이 매우 돋보였음. 단, <응답하라! 1982 프로야구>라는 흥미로운 서브 타이틀과는 달리, 1982년 프로야구 원년의 기억보다는 문학구장에서의 인터뷰 및 현장 영상의 비중이 더 큼으로 인해 다소 기대에는 못 미친 느낌이었음.

【구성 및 내용】

흥미와 관심을 한껏 줄 수 있는 테마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인천 문학구장에 비중을 많이 둔 구성으로 인해, '이상벽의 TV 시간여행'이라는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정체성을 잘 살리지 못한 느낌임. **이상벽 진행자가 인천문학구장을 찾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백인천 선수의 집을 방문해서 1982년 프로야구 출범 당시의 흥미진진한 에피소드들을 특유의 구수한 입담으로 들려주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음.**

아르바이트 생들의 치킨주문을 비롯해 그린 존에서 텐트를 치고 구경하는 가족들 및 삼겹살을 구워먹는 가족들과의 대화 등은 재미는 있었던 반면, 이상벽의 TV 시간여행}에서 다루어야 할 1982년 당시의 추억이나 에피소드와는 별로 연관이 없는 내용으로 일관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정체성과는 괴리가 느껴졌다고 생각됨. 또한 갑자기 성남고등학교를 찾아 고교야구의 추억을 다룬 점도, 포커스가 흩어지는 인상을 주었음.

프로그램	대한늬우스의 '그때 그 사람'		
방송일자	2014. 4. 4. 16:05	시청률	0.022

【총 평】

식목일을 맞아 시의성 있고 의미있는 기획으로 식목일을 제안하고 산림청을 만드는데 앞장서서 전쟁 이후 황량했던 우리 국토를 푸르게 가꾸는데 일조한 고 현신규 박사를 회고하는 내용이었음.

제목은 '식목일에 만나는 숲 인생, 숲으로 숨쉬는 대한민국'으로 주인공은 출연한 현정오 서울대 명예교수가 아닌 고 현신규 박사를 회고하는 형태를 띄다보니 관점 자체가 어정쩡한 면이 있었다고 생각함.